

# 어쩌면 사기일지도 모릅니다!

##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면 상담해 주세요

최근 일본에서는 「사기」를 당해 돈이나 재산을 잃어버리는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가상통화사기, 가공청구, 정보에 관한 상품·부업사기, 환부금 사기, 결혼사기, 보이스피싱사기, 원클릭사기, 인스타그램사기 등, 연령이나 성별, 국적에 상관없이 살금살금 일반인들의 생활 속으로 파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로망스사기」도 최근 피해가 늘고 있는 「사기」 중 하나입니다. 범죄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례 1》

매칭사이트에서 알게 된 서양인과 LINE 을 교환 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상대는 매일같이 연락해 왔습니다. 다정한 말을 하며 열정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처음에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계속해서 연락을 하다 보니 조금씩 신뢰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다가 완전히 믿어버리게 되었습니다.

SNS (특히 LINE)상에서 한번도 만난 적이 없는 두 사람이 결혼 얘기까지 하며 다양한 정보를 교환합니다. 그런 가운데 투자를 해서 함께 돈을 벌자고 하거나, 절대로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이니까 "두 사람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자"라든가 외국의 상품을 일본에 팔아 돈을 벌자는 등의 얘기를 합니다. 방법은 다양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SNS 를 통해 속삭이는 「사랑의 말」과 반드시 「돈」을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 《사례 2》

나는 35 살의 필리핀사람입니다. 10 년 전 남편과 사별한 후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채팅의 ‘친구 모집’을 통해서 한 서양 남성과 사귀기 위해 메일을 교환했습니다. 하루에도 몇번씩 다정한 메일을 보내주는 그 사람과 결혼을 약속하고 100 만엔을 송금했습니다. 송금을 하자마자 연락이 닿지 않고 송금한 돈은 돌려받을 수 없었습니다.

### 《사례 3》

나는 일본인입니다. SNS 에서 만난 남아시아 소녀로부터 “일본에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짐을 보내고 싶은데 받아 주었으면 좋겠다” “인수 비용 35 만엔을 송금해 달라” 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아무 짐이나 돈을 받아준다는 약속을 해서는 안됩니다. 송금을 하면 되돌려 받을 길은 없습니다.



◇이럴 때는 「소비자 핫라인 188」에 전화합니다.

이와 같은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평소에 주의하시고 경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도 피해를 당했을 때는 "소비자 핫라인 188"에 상담합니다.

경찰은 "110" 소방차나 구급차는 "119" 그리고 사기나 소비자 트러블로 도움이 필요할 때에는 "소비자 핫라인 188"을 이용해 주십시오.

◇후지미노 국제교류센터에서도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활상담이모저모

FICEC는 금요일 10시~16시에 생활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합니다. 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스마트 폰에서 "外国人しごと(외국인 일)"로 검색하거나 역이나 슈퍼에 있는 구인 잡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길을 다니다 "직원 모집"이라는 전단지나 붙어있는 가게를 찾아 직접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CREATIVE' 등의 파견 회사에 등록하여 "임금을 일당으로 지불해 주는 회사를 소개받고 싶다"고 하세요. 계절에 따라 특히 바쁜 시기만 일시적으로 모집하는 회사 등을 찾아줍니다.

어떤 방법이든 채용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 OK, 일본어 불필요"라고 해도 일본어를 할 수 있으면 일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일본에서 살고 있는 이상 일본어를 알면 매우 편리합니다.

**나는 불법체류 중이어서 비자가 없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백신 접종에 대해 국가는 채용자격이 없는 외국인 (불법체류자나 가석방자 등)에 대해서도 제공하겠다고 올해 5월에 발표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채용자격이 없는 외국인에게도 접종권을 보내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접종권이 없는 사람에게 백신을 놓아주는 병원이 있을 것 같진 않습니다. 접종권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NPO 법인 POSSE 이와바시쨈)

FRESC 03-5363-3015 나 FICEC 049-269-6450 에서 상담 받고 있습니다.

**그림 콘테스트  
작품을 모집합니다**

■테마/「나의 얼굴」 「가족」 「무제」

■응모자격/

- ①후지미노시·후지미시·미요시마치에 거주·재학
- ②FICEC의 국제어린이클럽에 재적한 적이 있는 분
- ③18세 이하의 외국계 어린이

■재료/

물감·포스타칼러·크레용·싸인펜·색연필 [도구는 FICEC 에도 있습니다]

■작품사이즈/자유

용지는 FICEC 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감/2022년 3월 31일

■응모그룹/

- A 그룹 초등학교 2학년이하
- B 그룹 초등학교 3학년~6학년
- C 그룹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

■상/전원에게 참가상

각그룹에 금상·은상·동상  
(상품/타블렛, 블루투스이어폰 등)  
작품은 시청 갤러리 등에 전시됩니다.

■신청/후지미노국제교류센터

049-256-4290 담당:안, 야마하타

**『교복, 체육복·츄리닝의 리사이클』을 이용해 주세요**

후지미노시 복지종합 상담센터에서는 시내 공립 중학교의 교복이나 체육복, 츄리닝 등의 리사이클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전학을 오게 되어 다시 장만해야 하는 분 외에도 교복이나 체육복이 필요하신 분께 무상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꼭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오이중, 오오이 히가시중에서도 같은 기획을 준비하고 있으니 각 학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후지미노시복지종합상담센터  
니지이로 049-265-6300

**후지미노시 「생활가이드」의 네팔어판이 출판되었습니다.**

시청에서의 수속이나 서비스, 생활에 필요한 정보가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영어, 쉬운 일본어, 중국어, 한국어, 필리핀어, 포르투갈어, 베트남어, 네팔어의 번역판이 있습니다.

FICEC 에서 제공합니다. 무료입니다